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9. 02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 국정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이동한 과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구정태 연구원

전화 | 02-3014-1040
e-mail | jtkoo@hrc.co.kr

목 차

CONTENTS

1. 현안 조사

2. 국정 지표

3. 조사 개요

01

현안조사 : 미투(Me Too), 1년

- 지난 1년간의 ‘대한민국 미투’는 구조적 성차별과 위계구조를 바로 잡는 단초가 되고 있지만, 미투를 둘러싼 담론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책과 사회구조, 담론이나 논쟁 속의 ‘미투’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미투’ 사건으로 불리는 수많은 이슈와 경험이 실제로 나와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 어떤 체감적인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 미투운동 지지비율은 74%로 ‘지지하지 않는다’ 응답 22%보다 여전히 3배 이상 많았지만, 한국리서치의 1년 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0%p 가량 지지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성·연령층에서 지지비율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20대(-33%p), 30대(-29%p) 남성의 지지철회 비율이 눈에 띕니다.
- ‘미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66%로 ‘부정적’이라는 의견(27%)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미투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18%p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성·연령층에서 긍정적 영향 응답비율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고 특히, 20대 남성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57%)’라는 응답이 ‘긍정(31%)’ 비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 ‘미투’가 사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으로는 ‘성적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거나 ‘주위에서 성추행 등을 목격하거나 듣는다면 문제제기를 하거나 도움을 줄 것이다’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남성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변질된 미투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등의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미투는 개인의 인식과 행동규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성과의 관계 및 협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동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 한편, 성인지적 인식 관련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을 불가능하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조직 구성원과 분위기에 따라 가벼운 성적 유머나 술자리 실수 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그렇지 않다:63%)’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성인지적 관련 인식에서도 느린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인지적 인식 관련 각 진술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태도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평가, 국정방향 공감, 인덱스(경제/안보/삶)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전월(50%) 대비 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40대에서 하락폭이 전월 대비 8%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컸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약간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 대통령 호감여부는 호감이 간다는 비율이 56%로 전월(59%) 대비 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호감 비율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 우리나라 국정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41%)보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44%)는 비율이 약간 높았습니다. 전월(42%)과 비교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 경제인식지수는 -42로 전월(-48) 대비 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국가안보 지수는 +12로 전월(+15) 대비 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하노이 한미정상 회담 결렬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본인 삶 지수는 +4로 전월(+4)과 같았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1

현안조사
미투(Me Too), 1년

01

현안조사 1) 미투(Me Too) 지지

**미투 지지는 74%,
1년 전에 비해 1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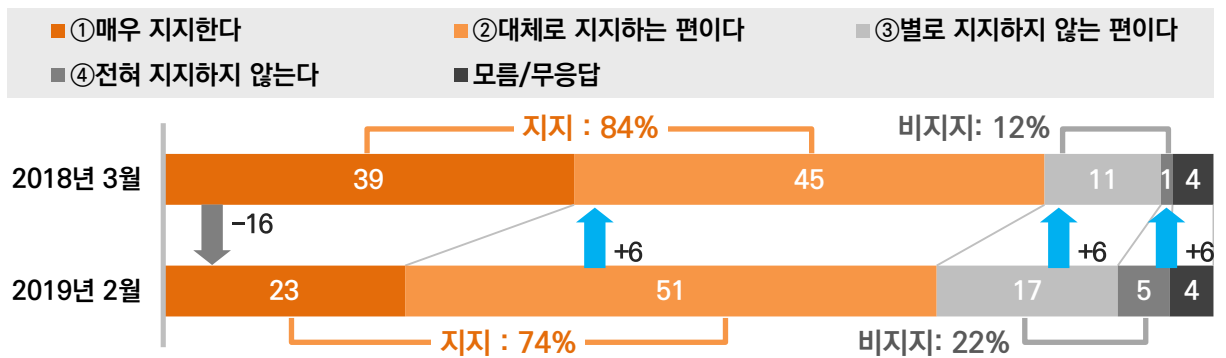
‘미투(Me Too)운동’ 지지 여부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견이 7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22%)보다 여전히 3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1년 전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투(Me Too)운동’ 지지 비율은 10%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지지한다’는 의견이 크게 감소(-16%p)하였다.

**20,30대 남성의
지지철회 비율이
크게 높음**

모든 성·연령에서 ‘지지한다’는 의견이 감소한 가운데, 20대, 30대 남성의 지지철회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20대 남성 -33%p, 30대 남성 -28%p). 특히 20대 남성에서는 오차 범위내이긴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47%)이 ‘지지한다’(44%)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Q ‘지난 1년간 우리사회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경험을 고백하는 미투(Me-Too)운동이 각계에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투(Me-Too)운동에 대해 지지하십니까?’

(N=1,000명, %)



성·연령별 지지의견 연차 비교

(N=1,000명, %)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2018년 3월	2019년 2월	GAP	2018년 3월	2019년 2월	GAP
19-29세 남성	77	44	-33	17	47	+30
19-29세 여성	95	82	-13	2	6	+4
30대 남성	78	50	-28	20	45	+25
30대 여성	95	82	-13	4	15	+11
40대 남성	91	75	-16	8	22	+14
40대 여성	92	85	-7	6	13	+6
50대 남성	78	77	-1	19	23	+5
50대 여성	87	84	-3	11	14	+3
60세 이상 남성	80	74	-6	14	23	+9
60세 이상 여성	74	78	+4	17	17	-

01

현안조사 2) 미투(Me Too)의 사회적 영향 평가

**미투의 사회적 영향력
긍정평가가 66%,
1년 전 대비 18%p 감소**

‘미투(Me Too)운동’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66%로 ‘부정적’이라는 의견 27%보다 크게 높다. 그러나 1년 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18%p 크게 감소한 반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은 16%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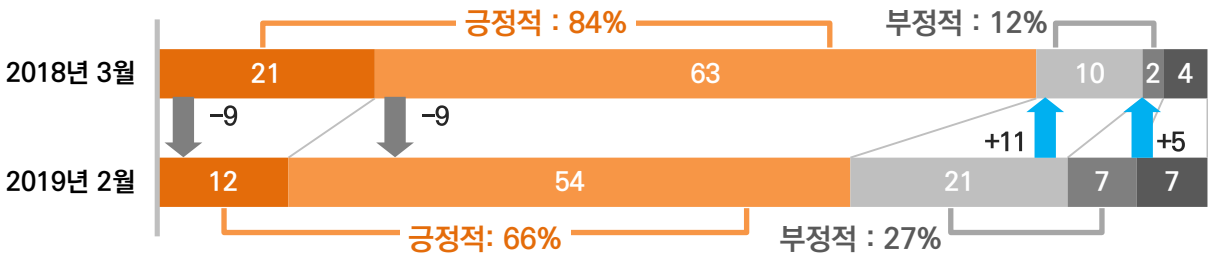
**20대 남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57%)이 더 많아**

전 성·연령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감소한 가운데, 20대 및 30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적 영향’ 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20대 남성에서는 -41%p, 30대는 -34%p가 1년 전 보다 감소하여, 20대 남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57%)이 ‘긍정(31%)’보다 훨씬 많았고, 30대 남성에서는 두 의견(각각 48%)이 팽팽했다.

Q 선생님께서는 미투 운동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명, %)

- 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②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③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④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모르겠다



성·연령별 사회적 영향 평가 연차 비교

(N=1,000명, %)

	긍정			부정		
	2018년 3월	2019년 2월	GAP	2018년 3월	2019년 2월	GAP
19-29세 남성	72	31	-41	22	57	+35
19-29세 여성	96	71	-24	5	10	+5
30대 남성	82	48	-34	18	48	+30
30대 여성	94	67	-27	2	24	+21
40대 남성	89	72	-18	8	23	+15
40대 여성	93	71	-23	6	22	+16
50대 남성	77	72	-6	18	23	+6
50대 여성	90	80	-11	7	16	+9
60세 이상 남성	83	70	-13	13	28	+15
60세 이상 여성	69	71	+2	18	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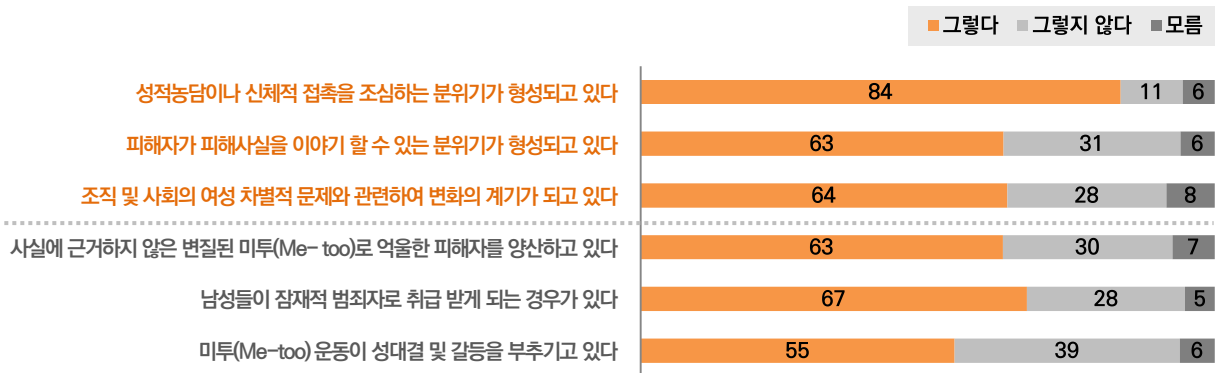
01

현안조사 3) 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모두 동의 비율이 높음**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세 진술 모두 동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러나 ‘변질된 미투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 양산(63%)’,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게 되는 현상(67%)’, ‘성대결 및 갈등을 부추긴다(55%)’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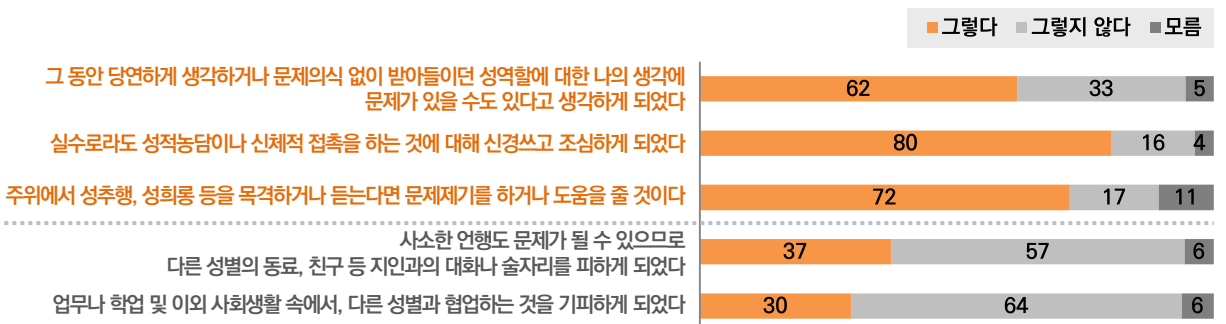
Q 미투(Me-too) 운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명, %)



**본인이 느낀 ‘펜스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음**

본인이 느낀 영향력으로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에 대해 신경쓰고 조심하게 되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위에서 피해를 목격하면 도움을 주겠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2%였다. 이성과의 관계 및 협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30% 이상이었다.

Q 미투 운동 및 고발 등의 이슈가 귀하 본인의 성인지,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N=1,000명, %)



01

현안조사 4) 성인지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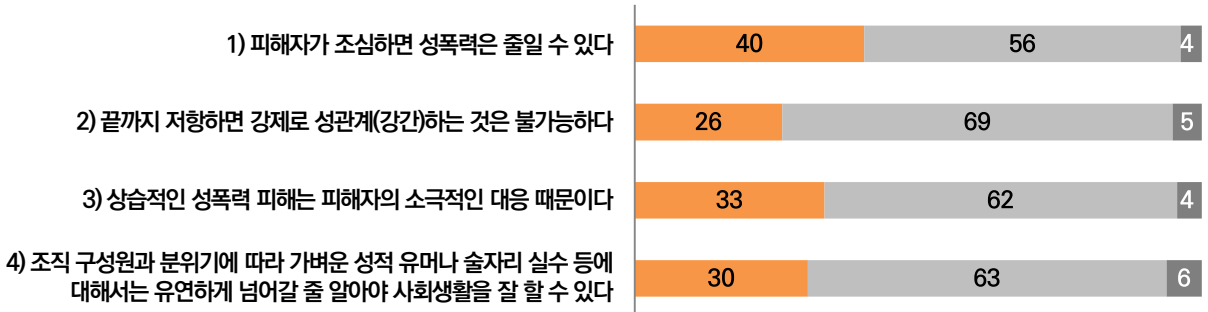
**성인지적 관점
성별, 연령별
태도차이가 뚜렷함**

성인지적 관점 관련 의견을 물어본 결과, 네 가지 항목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조직 구성원과 분위기에 따라 가벼운 성적 유머나 술자리 실수 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6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문항1~3)’와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가벼운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문항4)’는 의견도 최소 26%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인지적 관점 관련 각 진술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태도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Q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명,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모름



성·연령별 성인지적 관점 진술별 ‘그렇다’ 응답 비율 비교

(N=1,000명, %)

	사례수 (명)	1)	2)	3)	4)
전체	(1,000)	40	26	33	30
성별					
남자	(495)	51	36	41	37
여자	(505)	30	16	26	24
연령					
19-29세	(173)	20	9	12	16
30-39세	(168)	29	15	24	30
40-49세	(198)	37	25	35	32
50-59세	(200)	49	28	40	32
60세 이상	(261)	58	43	48	38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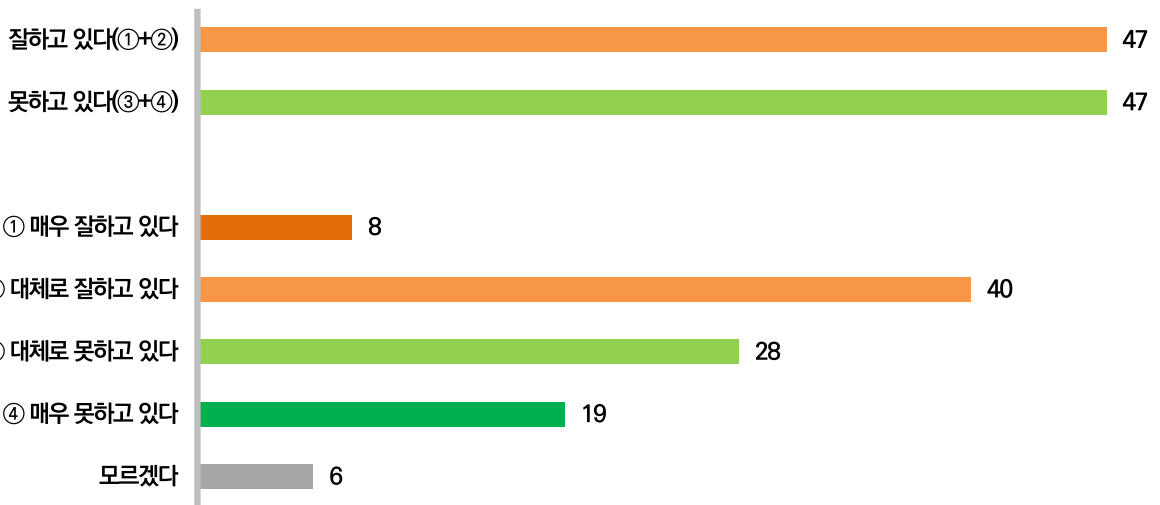
국정지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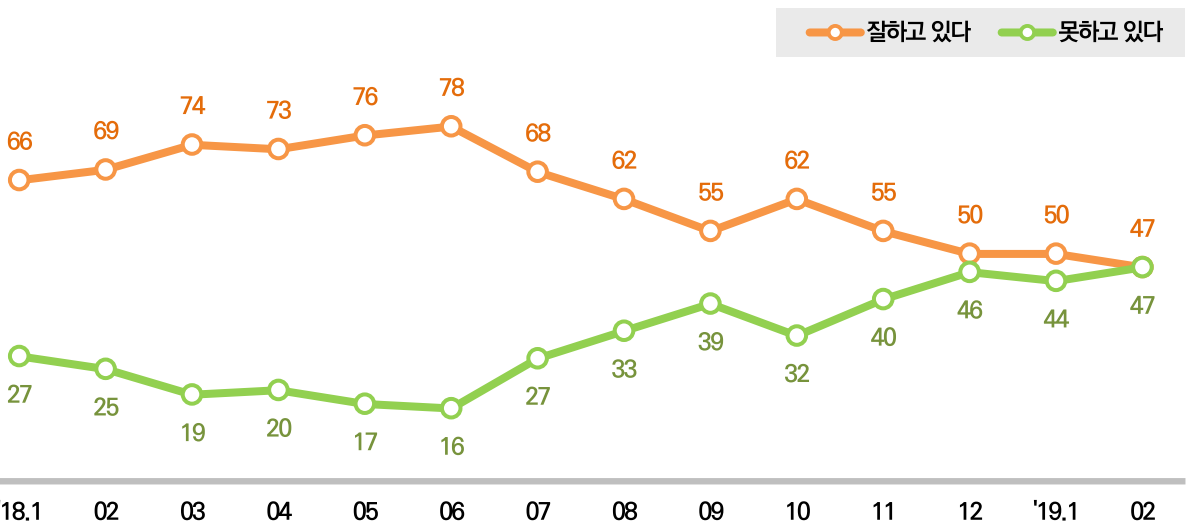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47%, 지난 달 대비 3%p 감소

잘하고 있다 47%, 못하고 있다 47%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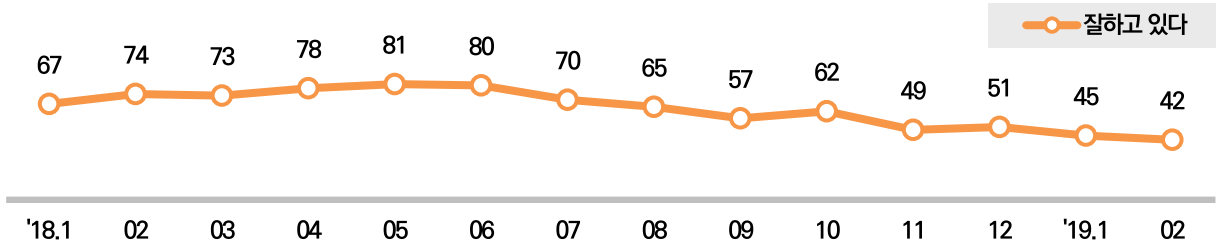
국정긍정평가 비율 지난달 대비 3%p 감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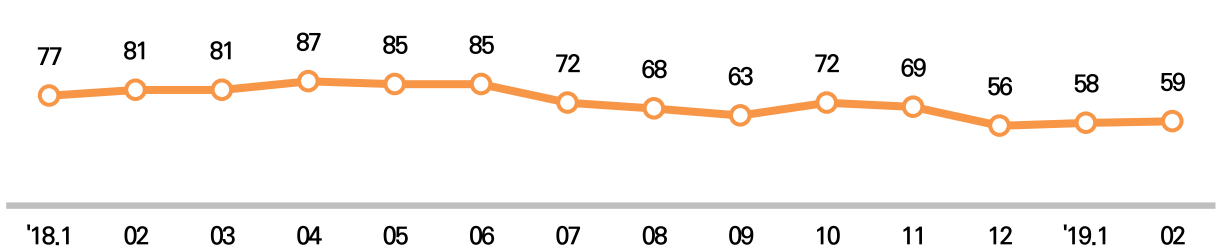
연령대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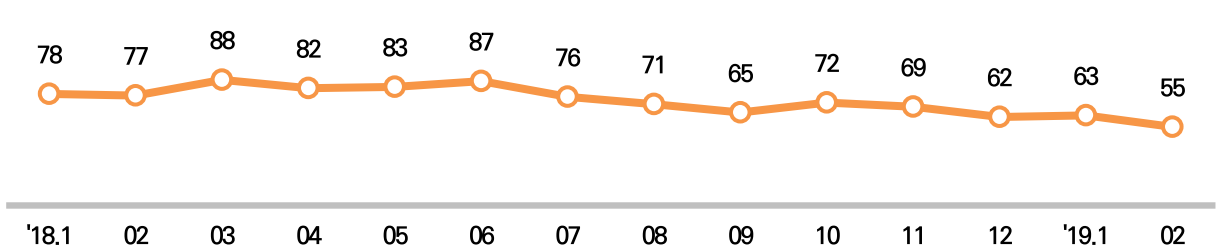
19~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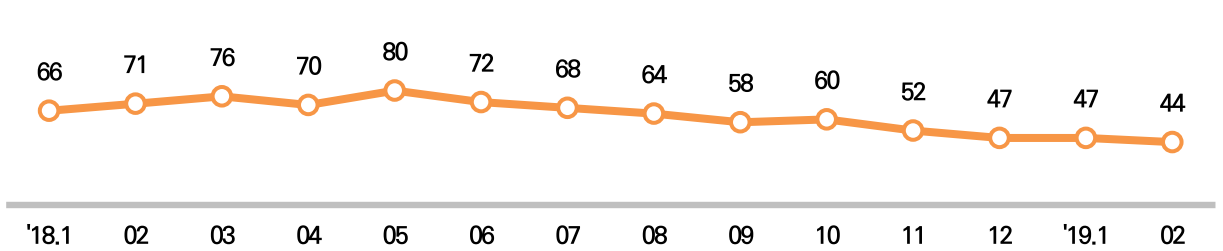
30~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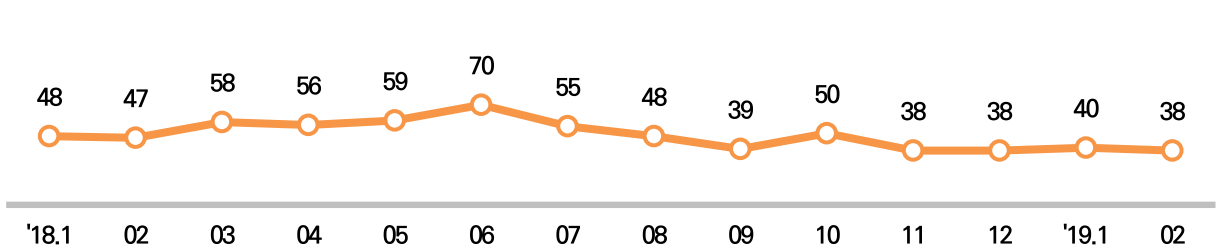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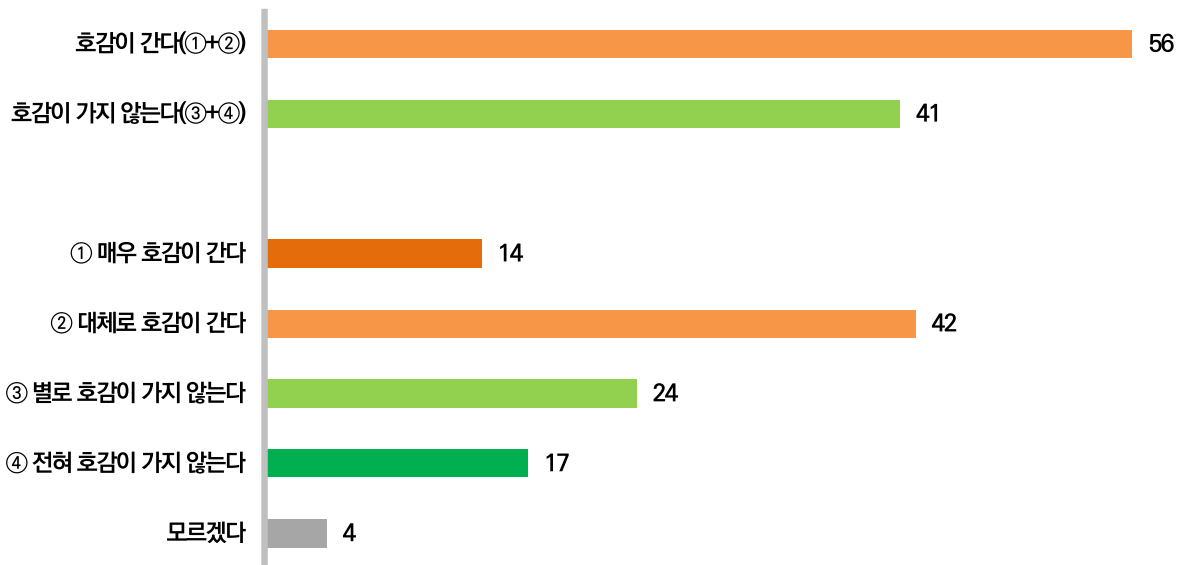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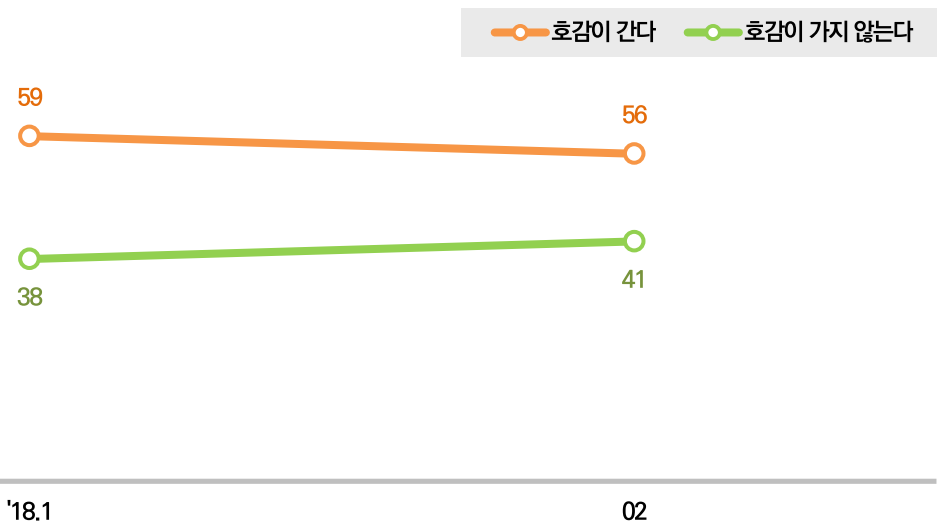
국정지표 2) 대통령 호감여부

대통령에게 호감이 간다 56%, 지난 달 대비 3%p 감소

호감이 간다 56%, 호감이 가지 않는다 41% (N=1,000, %)



대통령 호감 비율 지난달 대비 3%p 감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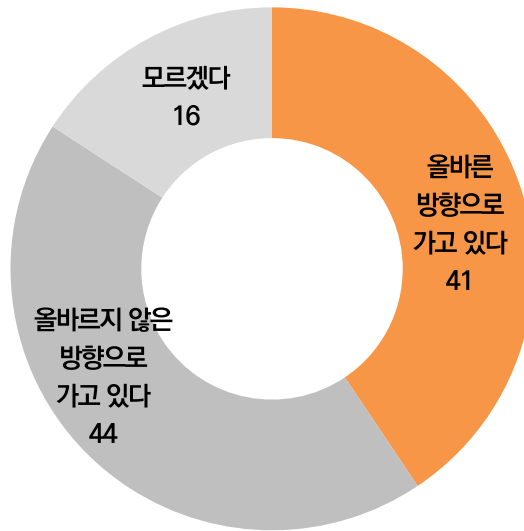
02

국정지표 3) 국정방향 공감여부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41%, 지난 달 대비 1%p 감소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41%, 그렇지 않다 44%

(N=1,000, %)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 지난달 대비 1%p 감소

(N=1,000, %)

○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18.1

02

02

국정지표 5) 인덱스: 경제/안보/삶

국가경제, 안보, 삶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경제 인식지수 -42, 지난달 대비 6포인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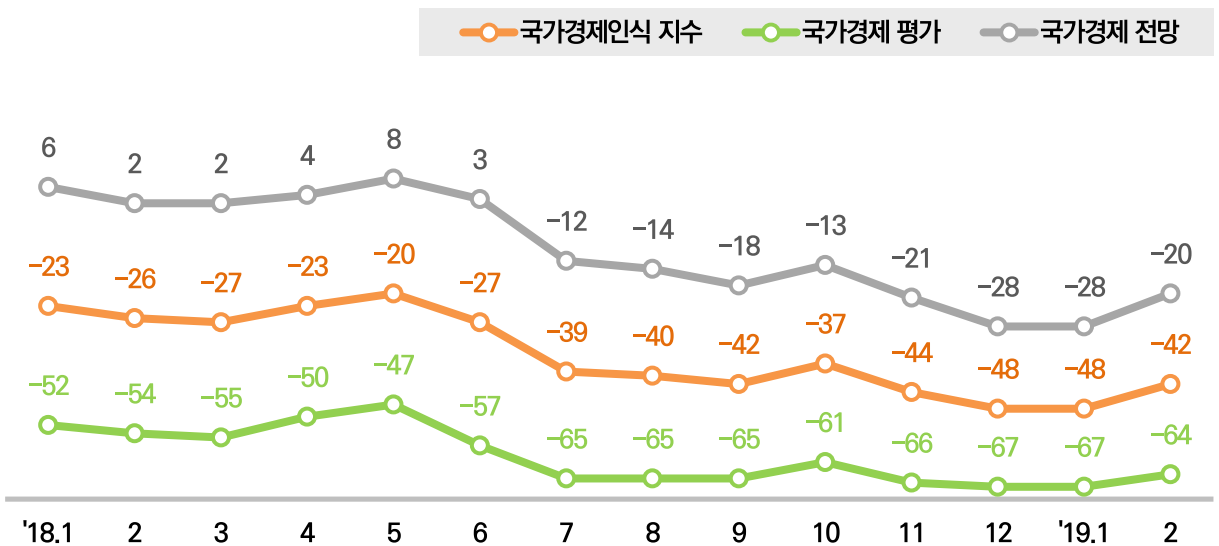
(N=1,000,%)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6%	22%	70%	2%	100%	-64(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나빠질 것 (c-d)
	25%	28%	45%	2%	100%	-20(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42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6포인트 상승

(N=1,000,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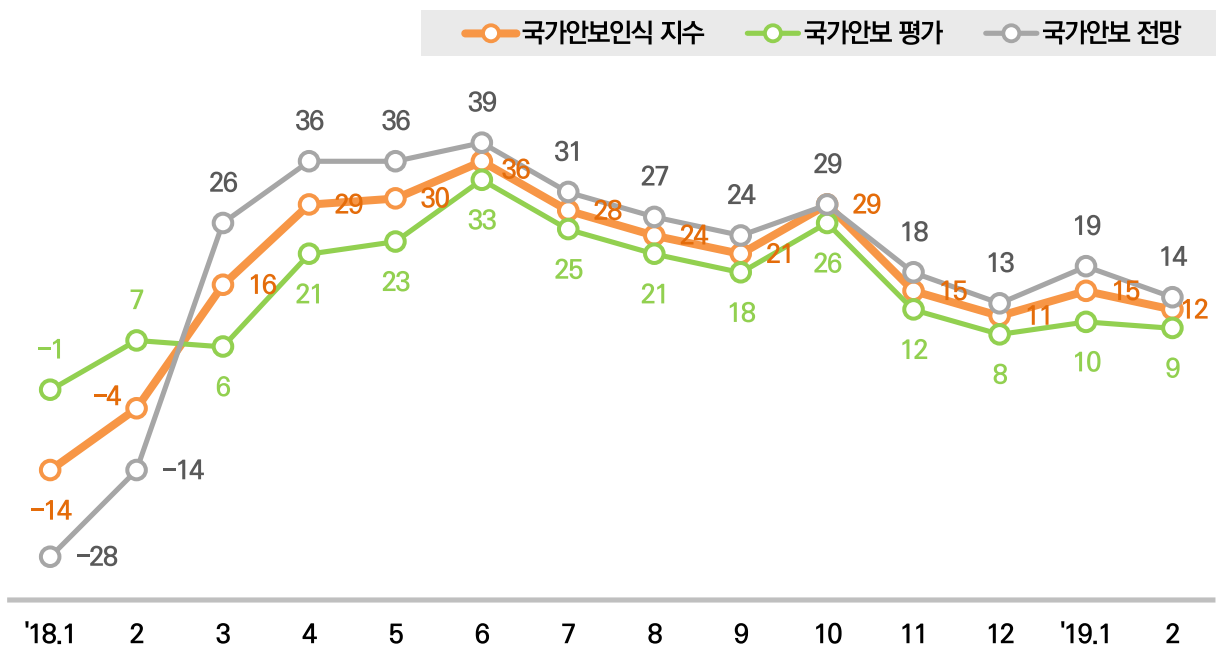
국정지표 5) 인덱스: 경제/안보/삶

국가안보 인식지수 +12, 지난달 대비 3포인트 하락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38%	30%	29%	2%	100%	+9(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나빠질 것 (c-d)
	40%	31%	26%	3%	100%	+14(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12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3포인트 하락 (N=1,000,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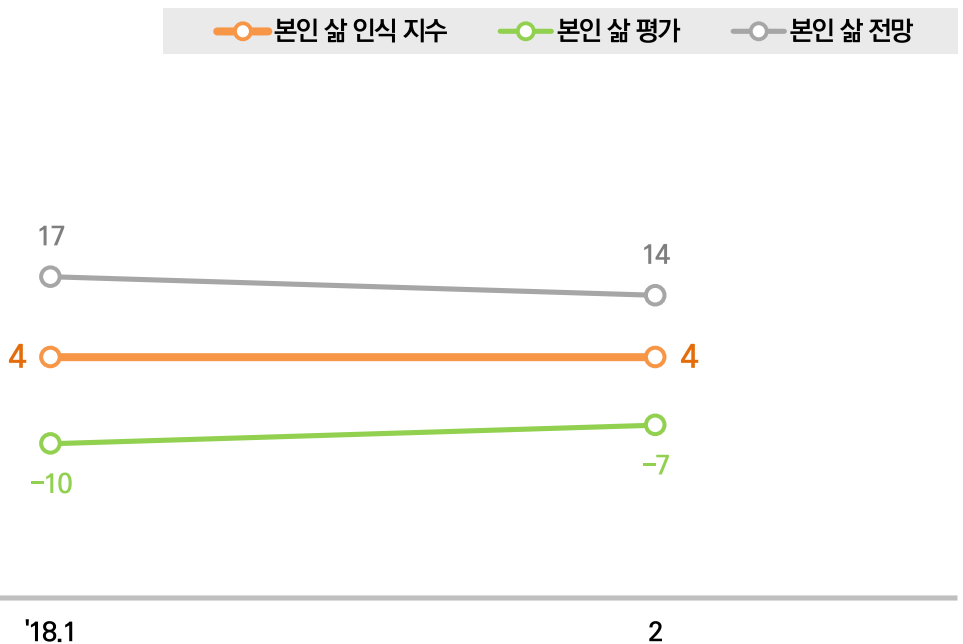
국정지표 5) 인덱스: 경제/안보/삶

본인 삶 인식지수 +4, 지난달과 동일

삶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

본인 삶에 대한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26%	41%	33%	1%	100%	-7(A)
본인 삶에 대한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나빠질 것 (c-d)
	35%	42%	21%	2%	100%	+14(B)
본인 삶에 대한 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4

본인 삶 인식지수 지난달과 동일 (N=1,000, 포인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8년 12월 기준 약 44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8년 12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569명, 조사참여 1,79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 참여대비 56%)
조사일시	• 2019년 2월 22일~2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